

A5001 채권형(PBVA)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채권형(PBVA)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NHAmundi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입금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채권형(PBVA)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8761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험,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0.04.30
운용기간	2025.01.01 ~ 2025.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투자의 목적은 주로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안정적인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국공채, 특수채, 우량회사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활용 가능한 추가 수익기법들을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채권형(PBVA)	자산 총액 (A)	453,082	422,529	-6.74
	부채 총액 (B)	360	4,473	1,141.74
	순자산총액 (C=A-B)	452,722	418,056	-7.66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335,751	307,214	-8.50
	기준가격 (E=C/D × 1000)	1,348.39	1,360.80	0.92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행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025년 1분기 국내 채권시장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분기 초에는 미국의 경기 지표 호조로 낙관론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하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연초 자금 집행이 본격화되고 한국은행 총재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 의지를 시사하면서 시장금리는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었고, 미 중시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하여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리 역시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미국은 향후 고금리의 정책의 전개 양상에 따라 거시경제 펀더멘털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방정부 지출 감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민감한 섹터를 중심으로 고용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비를 포함한 서비스물가 또한 점진적인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 경우,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강도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추가적인 국내 성장률 전망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단기금리는 고환율 장기화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하로 인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하향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 금리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채권형(PBVA)	0.92	1.76	3.08	4.21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채권형(PBVA)	4.21	8.03	9.67	9.32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3,856	101	-	-15	-	-	-	-	426	-536	3,822
당기	-	4,033	125	-	-78	-	-	-	-	388	-498	3,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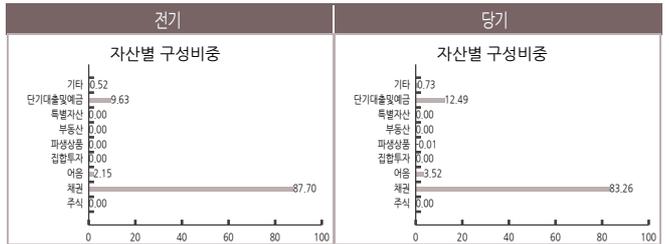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351,806	14,881	0	-24	0	0	0	0	52,787	3,079	422,529
(1.00)	(0.00)	(83.26)	(3.52)	(0.00)	(-0.01)	(0.00)	(0.00)	(0.00)	(0.00)	(12.49)	(0.73)	(100.00)
합계	0	351,806	14,881	0	-24	0	0	0	0	52,787	3,079	422,529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3250-2803(23-1)	8.44	6	채권	국고03500-3406(24-5)	3.28
2	채권	국고03250-2706(24-4)	6.30	7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3.16
3	채권	통안03200-2607-02	5.88	8	채권	국고2375-2712(17-7)	2.60
4	채권	국고2875-2712(24-12)	4.09	9	채권	BNK7매달324-3	2.44
5	채권	국고3125-2709(22-8)	3.36	10	채권	국가철도공단채권188	2.44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3250-2803(23-1)	35,000	35,677	대한민국	KRW	2023-03-10	2028-03-10	N/A	8.44	
국고03250-2706(24-4)	26,000	26,617	대한민국	KRW	2024-06-10	2027-06-10	N/A	6.30	
통안03200-2607-02	24,500	24,862	대한민국	KRW	2024-07-02	2026-07-02	N/A	5.88	
국고2875-2712(24-12)	17,000	17,288	대한민국	KRW	2024-12-10	2027-12-10	N/A	4.09	
국고3125-2709(22-8)	14,000	14,191	대한민국	KRW	2022-09-10	2027-09-10	N/A	3.36	
국고03500-3406(24-5)	13,000	13,878	대한민국	KRW	2024-06-10	2034-06-10	N/A	3.28	
국고2375-2712(17-7)	11,000	11,005	대한민국	KRW	2017-12-10	2027-12-10	N/A	2.60	
BNK7매달324-3	10,000	10,314	대한민국	KRW	2023-07-17	2026-07-17	AA-	2.44	
국가철도공단채권188	10,000	10,304	대한민국	KRW	2011-07-28	2026-07-28	AAA	2.44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30	13,332	2.30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허위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76	2,184,570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6	2,184,570	2119000109
윤유라	과장	76	2,184,570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57	0.01	53	0.01
판매회사	447	0.10	414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1	-	11	-
일반사무관리회사	19	-	18	-
보수합계	535	0.12	495	0.12
기타비용	3	-	2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3	3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3	3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709	0.0026	0.4735
당기	0.4698	0.0028	0.4726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해당사항 없음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